

축구

6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무서운 감독은 잊어줘”...사령탑들의 유쾌한 ‘팬소통’

황선홍, 날 선 댓글에도 재치 답글 남기길, 손 씻으며 볼리프팅 웃음
정정용, 6000명 팬과 온라인 출정



팀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K리그 개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각 팀의 선수들뿐 아니라 사령탑들도 온라인을 통해 팬들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대전 황선홍 감독(왼쪽 사진)과 제주 남기일 감독, 서울이랜드 정정용 감독(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직접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팬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사진 | 대전하나시티즌·제주유나이티드·서울이랜드 유튜브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요구한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모른다. 개막을 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K리그도 마찬가지다. 언제 문을 열지 예측불허다. 뛰고 싶은 선수나 보고 싶은 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팬소통이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온라인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리오넬 메시(FCB바르셀로나) 등이 동참하며 세계적으로 화제를 뿌린 ‘스테이 앳 홈 챌린지(Stay at home challenge)’가 대표적이다. 국내선수들도 자신의 일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면서 팬 곁으로 다가갔다. 선수뿐 아니다. 감독도 나섰다. K리그

2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을 비롯해 제주 유나이티드 남기일 감독, 서울이랜드 정정용 감독 등이 소통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벤치의 근엄함을 내려놓고 K리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온라인에서 팬과 마주했다.

대전은 최근 구단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황 감독의 커뮤니티 댓글 읽기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황 감독이 자신과 관련된 댓글을 직접 읽고 답하는 형식이다. 다소 비판적인 댓글에도 재치 있게 답해 호응을

얻었다. 황 감독은 “팬들의 의견을 읽어 보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도 팀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참여하겠다”고 했다. 황 감독은 그동안 1부 승격은 물론이고 팀 문화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1부다운 팀으로 자리 잡는 데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감독도 개막 공백 속에 주목 받은 사령탑이다. 특히 ‘스테이 앳 클럽하우스 챌린지(Stay at clubhouse challenge)’는

히트작이다. 집 대신 클럽하우스에서 20초간 손을 씻으면서 볼 리프팅을 하는 영상인데, 남 감독이 제안하고 직접 참여한 이벤트다. 남 감독은 “긍정적인 힘의 확산을 위해 시도했다”고 전했다.

정 감독의 온라인 출정식도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출정식이 취소된 가운데 정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 이 방송엔 6000명 이상의 팬들이 참여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축구에 굶주린 팬 위해 추억 소환 ‘하드 털었다’

유튜브·트위터서 과거 명승부 공개 팬들과 대화...추억 공유 재미 기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축구에 굶주린 팬들을 위해 ‘하드 털기’에 나섰다.

전 세계 프로스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시즌이 중단된 상태다. 각 프로스포츠단체 및 사무국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소셜 미디어(SNS)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과거의 명경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리그 유튜브 채널과 트위터를 통해 11일부터 과거의 명승부, 명장면 시리즈를 준비해 공개하고 있다.

K리그 유튜브 채널로 팬들과 만난 첫 명승부는 2008년 수원삼성과 FC서울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다. K리그 최고의 라이벌인 수원과 서울은 당시 정규리그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멤버 구성도 화려했다. 수원은 차범근 감독의 지휘 아래 송종국, 에두, 이운재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세를 귀네슈 감독이 이끌던 서울은 기성용, 이청용, 데얀 등이 포진해 있었다.

1차전(수원)에서 1-1로 비긴 뒤 팀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 진검승부를 펼쳤다. 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 벌어진 경기였지만, 우승을 놓고 벌이는 라이벌 매치의 치열함은 추위를 녹이고도 남았다. 혈투 끝에 수원이 2-1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했다.

이번 영상 공개는 단순히 과거의 명승부 소환을 넘어 실시간으로 팬들과 대화하며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프로축구연맹은 추억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오픈해놓고 있다. 13일 현재 2008년 수원-서울의 챔피언 2차전의 조회수는 7100회를 넘어섰다. 프로축구연맹은 앞으로 매 주말 K리그 명승부를 업로드해 팬들과의 추억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리그 리빙 레전드의 ‘마이팀 올 더 베스트’ | 1 전북 이동국

2020시즌 K리그를 누빈 인원은 784명(K리그1 443명·K리그2 341명)이다. 단, 모두가 똑같은 거울을 보낸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기존의 팀에 남았고, 누군가는 또 새 동지를 찾았다. 문득 궁금했다. 현역 가운데 ▲최근 10년 이상 현재의 팀에서 꾸준히 뛰었고 ▲승강제 시행 후에도 K리그1에 남은 이들은 몇이나 될까. 2가지 조건을 모두 채운 선수는 의외로 많지 않았다. 전북 현대 이동국(41)과 최철순(33), FC서울 고요한(32), 포항 스틸러스 김광석(37), 수원 삼성 염기훈(37) 정도다. 모두 K리그의 ‘리빙 레전드’로 꼽히는 최고의 베테랑들이다. 그만큼 숱한 추억도 쌓았다. 그래서 물었다. 각자의 기억에 살아 숨쉬는 역대 최고의 라인업을 꼽아달라고.

“난 원톱...돌파는 루이스·윙어는 에닝요”



전북 이동국은 최근 10년 이상 지금의 유니폼을 입고, 승강제 이후에도 꾸준히 K리그1에서 뛰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선수 중 한 명이다. 전북에서만 160골·48도움을 기록한 업적 자체만으로도 스스로를 4-1-4-1 포메이션의 꼭지에 세우기에 어려움이 없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수비형 MF인 김상식 “최고 전복맨” 센터백 김형일·조성환 파이터 유형

●이동국이 본 전북 역대 최고의 베스트11



‘라이언 킹’ 이동국은 2009년부터 전 주성을 누볐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이뤘다. K리그 7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회 정상을 밟았다. 지방의 ‘그저 그랬던’ 중소클럽이 성적, 인프라 등 여러 부분에서 확고한 명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160골·48도움을 올린 베테랑 골잡이의 지분은 상당했다.

그 자신도 스스로를 4-1-4-1 포메이션을 토대로 한 ‘올 더 베스트’ 꼭지에 세웠다. 근거가 충분한 자신감이다. 스트라이커의 뒤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루이스, 오른쪽 윙어로 에닝요(이상 브라질)를 배치했다. “볼 간수 능력과 돌파를 겸비한 루이스, 팀 분위기를 바꿔주는 강력한 프리킥을 장착한 에닝요가 있을 때 우린 최고였다.”

이동국은 이재성과 최태욱을 각각 중앙과 오른쪽 측면에 세웠다. 남다른 축구 지능과 센스로 무장한 이재성은 홀슈타인 킬(독일)에서 활약 중이지만 전북에서의 족적도 강렬했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에 앞서 ‘녹색군단’의 전성기를 지휘한 최강희 감독(상하이 선화)은 “이재성의 출전에 따라 모든 틀을 바꿔야 했다”고 떠올린 바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

(포르투갈) 체제의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는 최태욱은 전북의 우승신화가 시작된 2009년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김상식 전복 코치를 뽑았다. 전북 입단을 함께 고민했을 만큼 두터운 친분의 이동국은 “이 자리 최고의 전복맨”이라는 짧고 굵은 찬평을 남겼다. 최강 수문장에 권순태를 선정한 그는 포백수비에 확실한 특징을 지닌 멤버들을 뽑았다.

센터백 김형일과 조성환은 파이터 유형이다. 팀을 향한 헌신, 승부에 대한 집념으로 무장했다. 좌우 풀백 박원재-최철순은 성실함의 대명사다. 이동국은 “(박)원재는 항상 애절하게 뛰었고, 투지의 (최)철순이는 부여된 임무를 100% 완수했다”며 엄지를 들었다.

남창형 기자 yoshie3@donga.com

분데스리가 ‘5월말 재개’ 가능성 대두...FIFA는 우려

유럽 코로나 확산 불구 재개설
인판티노 회장 “심사숙고해야”

하지만 최근 5월말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분데스리가는 5월말쯤 재개해 팀당 9경기씩 남은 시즌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가급적 7, 8월에는 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분데스리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 유럽 프로리그 중 가장 먼저 재개를 알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리그 재개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

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축구 경기가 가능할지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관중 경기를 펼친다고 해도 축구는 몸싸움이 빈번한 종목의 특성상 비말을 통한 감염 확률이 매우 높다.

유럽 내에서 프로축구리그 재개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직접 나서서 “유럽 내 각 프로리그가 재개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0%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축구 경기를 펼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FIFA는 전 세계 각 프로리그가 2019~2020시즌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선수들의 개인계약 일부 연장과 여름이적시장 일정 연기 등은 받아들였지만, 실제 경기 진행에는 여전히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을 필두로 한 몇몇 팀은 소규모로 팀 훈련을 시작하면서 리그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축구 경기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머드리가 암배 가는 그날까지!

할매나 하이킥 차는 그날까지!

각투기 예능의 끝판왕

이중 TV

이중TV 유튜브채널 인기 폭발